

단편에 드러난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의 특징  
-단편 <약사의 아내>, <아가피야>, 그리고 <불행>을 중심으로-  
Chekhovian Eroticism's Characteristics in Chekhov's Short Stories  
-Focusing on his Short Stories, <the Chemist's Wife>, <Agafya>, and <a Misfortune>-

홍현우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Hyun-Woo Hong(thar93@hanmail.net)

요약

체호프는 그의 단편들 중 여성들의 '육체적 욕망과 부정(不貞)'을 강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고자 했던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그만의 에로티시즘을 탄생시켰다. 체호프의 에로티시즘은 남녀 간의 '관능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에로티시즘만이 요구하는 표현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체호프는 그 특징적 작품들 속에서 여성들이 왜 부정하게 되었는지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밝히고 있으며, 육체적 욕망과 도덕성 사이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에 집중한다. 체호프에게 성적 욕망에 있어 불완전한 여성들의 '부정과 일탈'은 결국 그들의 더한 '불행함'으로 귀결된다.

본 필자는 체호프 단편들 중에서 에로티시즘적 특징이 두드러진 세 작품 <약사의 아내>, <아가피야>, 그리고 <불행>을 중심으로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의 배경과 정의, 그리고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단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작품 속에 녹아있는 그만의 에로티시즘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중심어 : | 체호프 단편들 | 체호프식 에로티시즘 | 텍스트 분석 |

Abstract

Some of Chekhov's short stories strongly depicted 'women' physical desire and the sins of the flesh. Chekhov created his own eroticism in life as it is through the stories. While the Chekhovian eroticism naturally emphasized on 'sensual issue' between men and women, it is not limited to the erotic expressions only. In the stories, Chekhov is saying about the fundamental causes that why women must cheat on their men, so that he focused on their mental conflicts between corporalities and morality. Finally, women' infidelity and deviance make them cause misfortunes more than ever.

Focusing on the best Chekhovian eroticism short stories, <a Chemist's Wife>, <Agafya>, and <a Misfortune>, the writer explores Chekhovian eroticism's background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by analysis each text deeply.

■ keyword : | Chekhov's Short Stories | Chekhovian Eroticism | Text Analysis |

## I. 서론

체호프는 600여 편에 이르는 단편을 통하여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백하게 그려냈다. 그는 일상적인 오랜 관습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리고자 했으며, 그래서인지 단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단편들은 '하찮고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작품 속에서 다루어진 인물들 중 특히 여자들의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결핍으로 인한 일탈과 부정(不貞)을 다룬 수십여 편의 '에로티시즘 단편들'은 체호프의 예술서계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1].

체호프 단편들에 내재된 에로티시즘은 1880년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육체적 본원에 대한 체호프의 관심으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특히, 여성의 심리적, 육체적 본성 탐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그리고 <불행>과 같은 에로티시즘을 표방하는 특징적인 단편들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2].

그러나 체호프의 에로티시즘 단편들 역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집필 초기부터 지속되는 그만의 문학적 특징 안에서 완성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다루는 작품들에서는 동시대 문학가들에 비해 표현이 노골적이었고, 성욕에 지배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과감히 묘사해서 문학비평계의 혹평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문학적 특징을 고수한 것이 이런 성향의 작품들에서 '관능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로티시즘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여과 없이 솔직담백하게 '보여주는' 그만의 에로티시즘은 일탈한 여성들의 혹독한 내면을 느끼게 되면서 관능적 이미지에만 몰입되는 우리의 시선을 스스로 완회시키게 하고, 작품의 본질적인 주제인 '여성의 성(性)적 불완전성'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체호프의 단편들 속에는 인간, 특히 여성의 '관능성'이 두드러진

다.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작품 성립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관능적 표현들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체호프의 에로티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육체적 욕망을 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그 육체적 욕망에 지배되는 '여성의 심리적인 갈등', 즉 '여성의 불완전한 육체적 본성'에 대한 지점을 가장 핵심으로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에로틱한 행위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도달하기 이전, 스스로 욕정에 무너지면서 증폭되는 심적 갈등이나, 혹은 그 이후에 겪게 되는 허무함, 두려움, 고통 등을 묘사하는 것에 주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적 단편들 속에는 여성들의 육체적 욕망에 따른 '부정(不貞)의 모습'이 관능성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오히려 '왜 그녀들은 그렇게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더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결국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인 그녀들은 우리로 하여금 '페이소스'를 갖도록 하며 작품의 끝에 긴 여운을 남기게 된다.

본 논문은 체호프만의 에로티시즘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특징들이 어떻게 텍스트 속에 녹아있는지 각 단편들을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수많은 에로티시즘 단편들이 있지만 대표작인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그리고 <불행>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관능성을 특히 부각시키면서 에로티시즘적 특징이 보다 잘 표현된 작품들이다. 따라서 체호프의 에로티시즘적 특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들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작품들은 다른 주제의 작품들에서 주로 남자 주인공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을 보완하며, 19세기를 넘어서까지 요구되었던 러시아 문학의 이분법, 즉 여성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구분에서 내적이며 정신적인 것만을 강조하던 성향을 탈피하여 하나의 전체 속에서 동등하게 보려는 체호프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II. 체호프 에로티시즘 단편들의 배경과 정의

체호프의 여성 문제에 대한 창작 시도는 1880년대 초기에 등장한 유머 작품들을 통해서였다. 이 시기, 그는 여성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젊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부적절함을 희극적으로 비틀어 폭로하곤 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여성 문제에 대한 체호프의 관심은 대학교 4학년 시절 학술 논문으로 쓰려고 구상했던 <성(性)의 권위의 역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체호프가 자연 과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음을 증거하며, 이후 여성상의 창조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1880년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성의 권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실증적 사조와 유물론적 사상,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등을 수용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특히 여성의 육체적 본성에 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체호프는 여성의 육체적 본성 그 자체와 그것이 발현되는 원인, 형식, 발전 과정 등을 면밀히 파헤쳐 에로티시즘적 성향을 특징화한 단편들을 완성해낸다[4].

그러나 이런 성향의 작품들은 사실적이고 육감적인 묘사와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을 상세히 표현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문학비평계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예술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리는 것이고, 그 사명은 절대적이고 거짓 없는 진실에 있다’는 체호프 문학의 정수에 대한 간과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5].

즉, 체호프의 예술세계에서는 옳은 것이 사실이면 당연히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그릇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역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작품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실현하면서, 부정한 유부녀들의 성적 욕망의 표출을 가감 없이 다루고, 노골적인 관능적 묘사들이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에로티시즘적 성향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겉으로 드러난 에로티시즘의 이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결집 있는 여성들의 내면적

변화가 도드라진다. 즉, 사회와 가정에서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생기 없는 삶’에서 돌연 직면하게 된 성적 욕구에 갑자기 ‘활기찬 삶’으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의도 자체에 정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 그 처절한 모습은 에로티시즘이 품고 있는 은밀한 정서로부터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켜 버린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주로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말초적인 행위들’에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녀들의 ‘욕망할 수밖에 없는 성적 불완전함’에서 작품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아이러니하지만 체호프가 지향하는 ‘예술적 객관성’에서 파생된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의 정수라 말할 수 있다.

## III. 체호프식 에로티시즘 특징

1880년대 후반, 체호프 단편들 속에 내포된 ‘에로티시즘’은 여성들이 드러내서는 안 되는 ‘육체적 욕망’의 발현이다. ‘에로티시즘’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 ‘관능적인 정욕을 유발하는 성질’은 이 작품들의 특징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면적 수단이 된다[6].

하지만 ‘관능성의 묘사’가 외적인 모습을 특징화시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더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은 왜 여주인공들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남성 중심적 사회로부터의 반발이 그 근본적 원인이 되지만, 여성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원인은 상대가 되는 ‘남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주제의 단편들에서는 남성이 주로 주인공이고, 관계된 여성은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고정된 이미지로 비취지지만, 이 에로티시즘 단편들에서는 주로 여성이 주인공이고, 역할답게 개인의 뚜렷한 성격이 부여되어 그것에 따라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

따라서 여성 개인의 성격에 따라 성적 욕망의 원인이 달라지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그 원인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개성적인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부정(不貞)이 되었든 혹은 미수에 그쳤든 간에, 그로인한 여주인공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그 과정’의 묘사는 ‘관능성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된다.

또한 심리적 갈등의 고통스런 압박을 지나 결국 ‘초연한 상태’가 되어버린 그들은 ‘여성의 일탈과 부정’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의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연한 태도가 그들에 대한 비난이 아닌 ‘페이소스’를 유발시켜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보이게 한다. 이는 가장 희생적인 존재이나 ‘가장 열성적이고 저항적인 인물들이 종종 여성으로 나타나는’ 체호프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7].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그리고 <불행>은 체호프의 에로티시즘적 특징이 잘 드러난 단편들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 속에는 위에서 요약했던 그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작품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텍스트를 통하여 그 특징들을 상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각 단편에 내포된 에로티시즘적 특징 분석

### 1.1 약사의 아내

<약사의 아내>의 내용은 이렇다. 도시에서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한 약국에 늦은 밤 두 명의 군장교가 찾아오고 약사인 남편이 자는 사이, 아내는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남편이 잠에서 깨면서 그녀의 아련한 기대와 욕망은 깨져버린다.

이 단편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방지되어 권태로워진 유부녀의 숨겨진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일탈을 ‘즐기는’ 과정을 그린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정의 형성이나 가정적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개인적 효용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요부 형’은 아니다[8]. 그녀의 일탈은 남편과의 권태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촉발된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육체적 욕망은 갈급이 심해 해소가 시급해 보인다.

“마음이 답답하고 따분해서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 울고 싶기까지 하다.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른다. 무슨 덩어리 같은 것이 가슴에 얹혀서 계속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1].

그러나 이런 그녀의 갈급한 상태는 욕망의 대상이 출현하면서 순식간에 해소가 된다. 그녀는 약국 앞에 서서 자신의 미모에 반했다는 두 군장교의 성적 농담을 엿듣고는 그들이 약국의 벨을 누르자,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방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문득 생각한다. 난 “전혀 따분하지 않고, 화가 치밀지도 않고, 울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심장이 두근거릴 뿐 이었다”라고[1].

두 장교가 약국에 들어서면 그녀와 두 장교 사이에는 묘한 ‘동지의 무드’가 생긴다.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욕망의 대상’으로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약을 사고파는 행위 속에 욕망을 숨기면서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가령, 그녀가 실수로 병따개를 떨어뜨리자 남자 주인공인 옴테소프 장교가 말한다. “소리 내지 말아요. 남편이 깨요.” 그녀는 대답한다. “젠들 어때요?” 그러자 옴테소프는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는 이층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조롱하듯 속삭인다, “남편은 저렇게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당신 꿈을 꾸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1]

서로의 목적이 확인된 후에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 스스로 깊게 빠져들어 버린다.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진동하는 약국 내부에서 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웃고, 애교를 부리고,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짙은 농담을 즐긴다. 남편의 코고는 소리와 함께 권태로움의 끝자락에 놓여있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생기에 찬 관능적인 여자’가 된 것이다. 유부녀로서의 정조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성은 ‘육체적 욕망’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라져가는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제 모든 탐색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한 걸음 물러나 그녀가 옴테소프를 거절한다는 점이다.

“당신 남편은 자는 군요……. 꿈을 꾸며…….” 옴테소프는 헤어지면서 약사 아내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저는 실없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서 실었다 하시죠? 반대로…… 절대 실없는 말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에 젊었던 사람은 행복하다고 셰익스피어도 말했어요”

“손을 놓으세요”

마침내 두 사내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약사 아내의 손에 키스하고, 마치 뭔가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한참 생각하다가 우물쭈물하며 약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침실로 달려가서 창문 곁에 앉았다. 그녀는 의사와 오펜소프가 약방을 나가서 천천히 스무 걸음쯤 걷다가 멈춰 서서 뒤라고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말일까?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관자놀이도 빠르게 뛰었다. 그 이유는 그녀 자신도 모른다……. 마치 저 두 사람이 속삭이면서 자기 운명을 결정이라도 하는 듯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1].

이런 그녀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육체적 욕망에 지배되어가는 모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갈등하는, ‘불완전한 자아’의 모습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결국 남편이 잠에서 깨자 그녀의 모든 욕망과 일탈의 꿈은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데,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을 ‘표독스럽게’ 쳐다보며 말한다, “아, 난 너무 불행해!”, “아무도, 아무도 몰라……[1].”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성적 욕구의 부분을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의 일탈의 과정 속에서 채워보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고립과 외로움’의 이미지만을 남기게 된다. 그녀의 마지막 혼잣말처럼, 진정한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들은 역설적으로 인물들의 고립, 즉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된다[9].

## 1.2 <아가피아>

<아가피아>에서는 ‘여성의 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약사의 아내>에 비하여 한층 더 두드러진다. <약사의 아내>에서는 ‘남성과의 단절’이 그 원인으로 주어졌다면, <아가피아>에서 여주인공 아가피야를 통하여 ‘여성의 육체적 욕구 본질’에 더 집중한다[10].

<약사의 아내>에서 여주인공이 다른 이성과의 일탈을 꿈꾸게 된 원인이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권태로부터 파생했다면, <아가피아>에서는 신혼인 아가피야와 남편 사이에서 어떠한 불화나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아가피아의 부정은 그 근본적 원인이 그녀 스스로의 육체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사프카의 여성을 끄는 치명적인 매력이 이 부정의 문제에서 배제된다면, 아가피아의 행동은 몸을 파는 여성들처럼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남녀간의 육체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그렇게 아가피야와 이외에 많은 여자들이 사프카와의 밀회를 즐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가피아의 불륜의 원인을 밝히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무엇보다 사프카는 ‘영여인간’만 아니라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묘사된 것을 보자면 이렇다. 그는 “키가 크고 잘 생겼으며 부싯돌처럼 강인했다. 그는 신중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읽고 쓸 줄도 알았으며, 술은 잘 마시지 않았다[1].”

또한 사프카는 여성을 유혹해 나락으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남자라는 개념의 ‘옴프파탈 (Homme fatale)’ 성격의 소유자이다[11].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유행하는 말인 ‘나쁜 남자’인 것이다.

그는 착하고 순박했지만 여자들을 무시했고, 함부로 거만하게 대했다. 심지어 자기를 향한 여자들의 감정을 경멸적으로 비웃고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런 거칠고 경멸적인 태도가 시골 여자들에게는 강력하고 물리칠 수 없는 매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멋지고 늘씬했으며, 두 눈에는 항상, 심지어 여자들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에도 은은한 부드러움이 빛났다[1].

사프카의 여성을 하대시하는 이런 태도는 사회의 담론이나 농민연구에서 여성들을 가여운 ‘희생자’ 또는 열등한 ‘이등국민’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러시아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접착된 차별적 의식에서 비롯된다[12]. 이런 의식은 사프카의 대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여자가 여기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그저 침이나 질 질 흘리겠지요 여자 앞에서는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집들에게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멍청한 것들이 쓴맛을 덜 봐서[1].”

“걸어가네, 기가 죽어서…… 계집들은 고양이처럼 장난을 좋아하고, 토끼처럼 겁이 많아……[1].”

그러나 그에 대한 여자들의 무한 애정이 잘생긴 외모와 건장한 신체,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건방진 태도만으로 설명되어지긴 부족하다. 이런 매력적인 모습과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임에도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패자이자 고향집에서 채소밭으로 추방된 불행한 사람이라는 그의 처량한 신세도 역시 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1].” 즉, 그는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매력적 인물인 것이다.

아가피아의 관능성은 아가피아 남편의 통근열차 마을에 ‘도착한 후에’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다. 통근열차 경적 소리는 아가피아에겐 사프카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시간인데, 이미 마을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아가피아는 남편과 사프카 사이에서 사프카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근열차의 도착에 대한 정신적 압박은 애초에 없었던 듯, 아가피아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사프카와의 육체적 욕망을 탐닉한다. 자리를 피해있던 극중 화자인 ‘나’의 설득에도 그녀는 불가항력 속에 빠져있는 듯 보인다.

보드카와 사프카의 경멸 어린 애무와 밤의 후덥지근한 공기에 취한 아가피아는 사프카 옆 땅 위에 누워서 자기 얼굴을 발작적으로 그의 무릎에 바싹 붙이곤 했다. 그녀는 감정에 폭 빠져 있어서 내가 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가샤, 기차가 지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어!” 내가 말했다.

“자, 이제 가야지? 사프카는 머리를 흔들며 내 생각

을 지지했다.”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떡해, 부끄러움도 없이?”

아가피아는 몸부림을 치고 나서 그의 무릎에서 머리를 떼고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그에게 매달렸다.

“가야 할 때가 벌써 한참 지났어!” 내가 말했다.

아가피아는 몸을 뒤척이면서 한쪽 무릎을 세워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녀는 피로워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 아가피아의 온몸에 30초 동안 갈등과 동요가 스쳐갔다. 한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은 듯 두 다리로 일어서려고 상체를 폈지만 어떤 무자비한 힘이 그녀의 온몸을 밀쳐 냈고, 그녀는 다시 사프카에게 매달렸다[1].

그러나 <아가피아>에서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사프카와의 지난밤을 뒤로 하고 이른 아침 먼발치 서 있는 남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아가피아의 모습에서이다.

아가피아는 잠시 서서 마치 우리의 도움을 바라듯이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나서 걸어갔다. 나는 슬 취한 사람들이나 멀쩡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음걸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가피아는 남편의 눈길에 아파서 몸을 비비 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때론 지그재그로 걸었고, 때론 무릎을 굽히고 두 팔을 흔들면서 한자리에서 서성거렸고, 때론 뒷걸음질을 치기도 했다. 백 걸음쯤 가다가 그녀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1].

마치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 분명히 그 원인은 두려움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도덕성과의 심리적 갈등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곧, 그녀의 갈등도 끝을 맺는다. 버틸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의 결론은 그간의 갈등이 무색할 만큼 단호하다.

별안간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뻗 흔들더니 용감한 걸음걸이로 남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음을 잡고 작심한 듯했다[1].

이런 그녀 돌발적 행동은 <약사의 아내>에서 욕구에 대한 의지를 단념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아내의 모습과는 다르게 도덕적 잣대에 스스로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의 ‘심리적 표현’인 것이다. 이 마지막 아가피아의 모습은 ‘관능적 사랑의 이미지’를 강조함에도 ‘에로틱’하기보다는 ‘애처로운 여성들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체호프의 에로티시즘적 특징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13].

### 1.3 <불행>

또 다른 에로티시즘 단편 <불행>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유부녀인 여주인공 소피아 페트로브나가 이웃 별장에 살고 있는 변호사 일리인의 구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녀의 심리적 갈등과 변화에 주된 초점이 있다.

최근 2, 3주 동안 이어졌던 소피아에 대한 일리인의 구애를 그녀는 잘 거절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거절해왔다는 사실’은 구애가 끈질겼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녀가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리인의 대사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만약 당신이 나의 아름답지 않은 장난을 반대한다면 왜 여기에 왔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거죠? 나는 당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하고 솔직한 대답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솔직한 대답 대신에 매일 ‘우연히’ 나와 만날 기회를 엿보며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요!”

결국 그녀의 거절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으로부터의 갈등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치는 되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육체적 욕구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고 무력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일리인은 욕구의 문제에 있어 솔직한 마음을 ‘친성’에 빚대어 그녀에게 토로한다.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또 엄청 싸우고 있지만, 내가 강단이 없고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하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친성과는 싸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싸울 수 없다구요! 내가 여기서 달아난다고 해도 친성이 내 옷깃을 잡는 겁니다. 정말 속되고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죠!”

이런 일리인의 대담성에 소피아는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놀라지만, 그보다 더 그녀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일리인의 ‘진정성’이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온통 뭔가 굶주린 듯 간청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자신의 눈을 그녀의 겁먹은 듯한 커다란 눈 가까이로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괴로워요. 맹세하건대 몹시 괴롭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생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리인의 진심에 당황하여, 소피아는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으며 열정적으로 멋있게 말하자, 이제는 그녀 스스로 이상한 희열까지 느끼게 되며, 여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소피아의 내면에는 이성적 통제와 관능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

따듯한 욕탕에 있는 것처럼 무릎이 기분 좋게 조여드는 이 위험한 순간에 그녀는 어떤 사악한 감교함을 느끼며 자신의 감각 속에서 분별력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는 미덕 대신에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술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무력, 나태,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 저 멀리 있는 한 조각의 양심이 ‘너는 왜 떠나지 않느냐? 떠나야만 하지 않느냐? 응? 하고 짓궂게 놀리고 있었다 [1].

이렇듯, 일리인의 진심어린 구애에 심한 혼돈을 겪게 되는 소피아는 자신에게 밝혀진 자기 영혼의 심연을 두려워하게 되며, 익숙하고 쾌적한 세계에서 복잡한 미지의 세계로의 갑작스런 전환에 놀라게 된다[14].

가정으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자신의 정신적 타락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딸과 남편에게 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녀가 희망하듯 ‘가족의 기초’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는 딸을 안아 올리면서 무겁고 차갑게 느꼈으며, 식탁 예절이 나쁜 남편을 이미 증오하기 시작한다.

일리인을 향한 고통스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스스로를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하면서도, 침해당한 정숙함에 대한 갱생의 의지는 사라진 듯 보이며,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를 집에서 끌어내려는 것이 감정이나 일리인의 인격이 아니라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감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1].*

단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피아는 남편에게 산책을 가자는 마지막 희망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시하듯 대답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길을 나선다. 일리인에게 가는 길인 것이다. 그녀는 홀린 듯 걸으며 스스로를 ‘음탕한 년, 뿔뿔 년’이라며 중얼거린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육체적 욕망은 불가항력임을 고통 속에서 체휼하고 있는 가엾은 영혼이다. 그녀는 직감한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더 강해서 나를 변형시킨다면, 습관적인 인생의 길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14].

#### IV. 요약 및 결론

체호프의 에로티시즘 단편들은 그의 다양하고 방대한 단편의 세계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18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생산된 그 특징적 단편들은 ‘여성의 육체적 본성 탐구’에 대한 관심에서 발전되어 체호프 문학의 정수인 ‘있는 그대로 삶을 바

라보는 객관적 태도’를 통하여 에로티시즘 자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한 ‘여성의 성(性)적 한계’를 조명하는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을 탄생시켰다.

그만의 에로티시즘적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에로티시즘’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듯, ‘관능성에 대한 부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에로틱’한 표현에만 국한된다면,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에로티시즘은 ‘육체적 욕망의 성적 표현들’의 이면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왜 여성들이, 특히 유부녀들이 가정으로부터 일탈하여 그렇게 욕망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우선 고찰되어진다. 또한, 그 원인으로부터 형성된, 각 단편이 남기게 되는 여성들의 이미지는 ‘부도덕함’을 강조하는 통속적 이미지가 아니다. 그녀들 스스로의 도덕률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극적으로 강조되면서 지탄당하기 보다 ‘페이스스’를 불러일으키며 ‘가없고 불쌍한 인간 군상들의 이미지’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체호프식 에로티시즘의 특징들은 대표적 단편들인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그리고 <불행>의 텍스트 속에 잘 스며들어 있는데, 각 단편에서 다르게 묘사되는 관능적 표현들과 그 여성들이 부정과 일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각각의 이유는 원인, 형태, 발전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분석되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체호프의 에로티시즘 단편들은 작품들이 표방하는 만큼 충분히 관능적이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작품의 성격이 정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작품의 본질을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들임에도, 번민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이고, 보는 이들의 감정을 더 확실히 움직인다. 그래서 체호프의 에로티시즘 단편들은 에로틱하지만 결과적으로 쓴쓸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페이스소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능동적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과 여성도 정신적인 면만큼이나 육체적인 면도 동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체호프의 주장은 그 당시 러시아 문학의 전통적 관점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안톤 체홉, *사랑과 욕망의 변주곡*, 에디터, 2012.
- [2] 김세일, “1880년대 체호프 창작에 나타난 여성문제”, *노어노문학*, 제21권, 제4호, p.284, 2009.
- [3] 박진환, *체홉의 단편에 나타나는 여성 문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p.5, 2000.
- [4] 김세일, “1880년대 체호프 창작에 나타난 여성문제”, *노어노문학*, 제21권, 제4호, p.290, 2009.
- [5] 김세일, “1880년대 체호프 창작에 나타난 여성문제”, *노어노문학*, 제21권, 제4호, p.289, 2009.
- [6] 편찬위원회,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7] 문석우, “체홉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연구”,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14권, p.88, 2003.
- [8] 정명자, “체홉의 ‘팜프파탈(Femme Fatale)’ 캐릭터 연구”, *러시아문학 연구논집*, 제36권, p.127, 2011.
- [9] 오중우, *체호프, 드라마의 웃음 세계*, 연극과 인간, 2000.
- [10] 박진환, *체홉의 단편에 나타나는 여성문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p.13, 2000.
- [11] 한금주, *TV드라마에 나타난 옴프파탈 캐릭터 이미지 분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p.15, 2010.
- [12] 기계형, “여성 농민들 범정에 가다 : 러시아의 가부장적 문화와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성과 역사*, 제9권, p.158, 2008.
- [13] <http://www.khan.co.kr>
- [14] 문석우, *안톤 체홉-새로운 형식을 위하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저 자 소 개

홍 현 우(Hyun-Woo Hong)

정회원



- 1997년 2월 :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BA)
- 2000년 11월 : 오하이오대(Ohio U), 연극과(MA)
- 2007년 2월 : 휴스턴대 (U of Houston), 연극과(연출 MFA)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대우전임교수, 극단 제자백가 상임연출

<관심분야> : 연극연출, 작품분석법, 연기론